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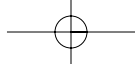
신사도 운동, 어떻게 보아야 하나?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케 하려 하리라"(마가복음 13:22)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불건전한 직통계시나 예언기도, 입신과 쓰러짐 등이 다양한 양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이 성령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이들을 혼란하게 하고 있다. 예언과 환상 등 신비 체험을 추구하는 이들의 수가 부쩍 늘어나고 있고, 수 십 년 전에 한국 교회를 휩쓸고 지나간 방언 열풍이 다시 불고, 신유집회가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다. 참으로 혼란스럽다. 어디까지가 성령의 역사이고 어디부터가 미혹하는 영의 장난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바로 이러한 때에 '갱신과 부흥' 으로부터 하나의 잣대를 마련해 달라는 청(請)이 있어서 신사도운동에 대해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I. “신사도운동이 무엇인가?”

“신사도운동이 뭐냐?”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다. 한마디로 신사도운동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와 예언이 있다고 보는 주장이다. 물론, 그들이 말하는 계시와 예언이란 전통적인 의미에서 단순히 성도가 경험하는 성령의 감화나 조명의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받았다는 21세기의 ‘신사도’ 혹은 ‘제2의 사도’ 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으로



받은 계시'를 의미한다. 따라서 직통계시와 예언기도 등을 강조하면서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으며 현대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운동이 바로 **신사도개혁운동(NAR, New Apostolic Reformation)**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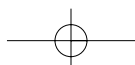
이 운동은 전 풀러신학교의 교수였던 피터 와그너(Peter Wagner)에 의해 주도되어 오고 있으며, 국내에도 그의 사역 연구소(WLI)가 설립되어 있다. 2009년 총회에서는 예장 합신측과 고신측이 신사도운동에 대해 각각 '이단성'과 '참여금지'를 규정했다. 이에 신사도운동의 지도자 피터 와그너(Peter Wagner)와 국내대표격인 변승우 목사의 주장을 중심으로 그 핵심만 간단히 정리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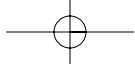
1. 자신들이 '사도'라고 한다.

피터 와그너는 1990년대 이후를 '신사도적 종교개혁시대'(New Apostolic Reformation Age)라고 한다. 그리고 이 새로운 종교개혁을 통해 2001년에 이르러 '제2의 사도시대'(New Second Apostolic Age) 혹은 '신사도시대'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신사도적' 내지 '제2의 사도시대'라는 표현은 사도의 은사와 직임이 1세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서 다시 인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와그너는 이러한 제2의 사도시대를 열기 위해 성령께서 3가지 사역을 준비시켜 오셨다고 주장한다.

첫째, 1970년대에는 '증보자'의 은사와 직임이 인정되는 일을 진행하셨고 둘째, 1980년대에는 '선지자'의 은사와 직임이 인정되는 일을 진행하셨으며 셋째, 1990년대에는 '사도'의 은사와 직임이 인정되는 일을 진행해 오셨다는 것





이다. 그리고 2001년에 이르러 마침내 제2의 사도시대가 개막되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물론 피터 와그너 스스로도 자신은 ‘사도’ 라고 주장한다.

“난 목회자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다. 오히려 사도이자 교사다”¹⁾

이렇게 사도를 비롯한 선지자(예언자), 전도자, 목사, 교사라는 교회의 ‘5대 직분’(엡 4:11)이 교회 안에서 회복된다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대로 교회가 다시 한 번 세워질 것이라는 게 피터 와그너의 주장이다. 그는 이것을 과거 1600년 동안 계속된 비성경적 교회의 직분체제가 드디어 제2의 사도시대를 맞아 성경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한국에서 신사도운동을 추종하고 있는 변승우 목사 역시 자신을 사도라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저는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저는 전도자가 아니라 사도적인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저는 사도 바울도 저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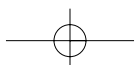
변 목사는 목사가 자신을 목사라고 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듯, 사도가 자신을 사도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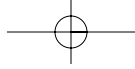
2. 하나님의 계시를 직통으로 받는다고 한다.

소위 ‘제2의 사도시대’ 신학의 핵심은 ‘사도적 예언’이다. 피터 와그너는 이

1) 피터 와그너(임종원 역), 『목사와 예언자』(도서출판 진흥, 2004), 39.

2) 변승우, 『주 달려 죽은 십자가』(큰믿음출판사, 2007), 11-12.





예언(Prophecy)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메시지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 ‘말’ 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특별한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2008년 10월 분당 할렐루야교회에서 열린 WLI Korea(한국 와그너리더십연구소) 졸업식에 온 피터 와그너는 “지금은 제2의 사도시대”라며 “하나님은 지금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계시들을 부어주고 계신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책 『목사와 예언자』에서 예언자들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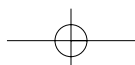
“예언자들이 아주 분개하는 둘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다는 데 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야 하지만, 예언자들이 초자연적인 은사를 사용하여 그런 일을 최고로 잘해야 한다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분명한 사실이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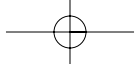
여기서 말하는 초자연적 은사들은 곧 예언의 메시지를 받는 방편인데 꿈, 환상, 음성, 입신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들은 이런 초자연적 경험으로 받았다는 메시지를 ‘사도적 가르침’ 혹은 ‘계시적 선포’ 라며 신자들에게 전달한다.

이처럼 피터 와그너와 그의 추종자들은 오늘날 교회가 직통계시를 받는 ‘사도와 예언자’ 의 모델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도와 예언자의 모델이 신약성경이 말하는 모델이며, 하나님은 오늘도 세계적으로 사도와 예언자들의 팀을 꾸리고 계신다는 것이다. 이제 사도와 예언자의 모델을 받아들이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임명하신 권위로 돌아오는 것이며, 그래서 교회의 영광과 기쁨을 넘치게 하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의 변승우 목사의 경우 “하나님께서로부터 듣지 않으면 설교하지 않습니다.

3) 피터 와그너(임종원 역), 『목사와 예언자』(근민음출판사, 2006), 21.





이것이 제 설교의 좌우명입니다”라며 직통계시를 중요시하고, 초자연적 경험들 역시 중요하게 취급한다.

“앞으로는 요엘이 예언한대로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지면서 꿈과 환상과 예언 그리고 입신과 같은 경험들이 급증할 것이며 초자연적인 세계와의 접촉이 자연스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이미 큰믿음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⁴⁾

3. 그들의 운동을 받아 들이지 않는 이들을 ‘종교의 영’(religious spirit)에 사로잡힌 자들이라고 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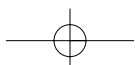
그들은 “종교의 영은 단순히 어떤 종교성의 태도가 아니다”며 “그것은 실제로 배척하고 결박해서 쫓아내야 할 악한 영”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신사도운동가들은 반대자들을 향해 ‘종교적인 사냥개’, ‘사탄의 줄개’ 등 극단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 “종교의 영들은 사람들을 낙심시켜 제2의 사도시대의 새로운 가축부대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주 세력”이기 때문이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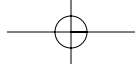
그런데 신사도운동가들이 ‘종교의 영’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바로 정통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제2의 사도시대에 동의하지 않고 반대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사도적 개혁과 같이 옛 부대에서 새 부대로의 변화는 언제나 강력한 저항을 만나게 된다. 하지만 이 저항은 옛 부대의 기름부음 받은 지도자들로부터 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저항은 항상 옛 부대의 기름부음을 받지 않은 지도자들로부터 온다. 예를 들어,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세례 요한의 태도와 정반대였다. …나는 이

4) 변승우,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큰믿음출판사, 2008), 290.

5) 피터 와그너(김영우 역), 『신사도적 교회로의 변화』(웨지나, 2006), 23.





것을 바로 내가 집단적인 종교의 영이라고 일컫는 마귀 세력의 작용이라고 보고 있다. 그것은 사탄의 계략이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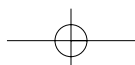
다시 말해, 신사도운동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들을 반대하는 교단과 교회지도자는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사탄의 세력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한마디로 신사도운동은 정통교회에 대항하는 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국의 변승우 목사 역시 자신을 비판하는 이단연구가들을 향해 ‘이단 사냥꾼’이라며 독설을 퍼붓는 것으로 유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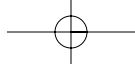
II. 신사도운동 비판

우리는 신사도운동가를 비롯해서 그러한 사상을 부분적으로라도 받아들이고 있는 일련의 ‘신사도운동의 아류들’이 주장하는 ‘현대적 사도직’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웨스트민스터신학교의 리처드 개핀(Richard B. Gaffin) 교수가 『오순절에 대한 조망』(Perspectives on Pentacost)에서도 강조했듯이, “교회에서의 사도적 활동은 단회적(once for all)”인 것이었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는 그들이 주장하는 직통계시와 예언 등을 인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 개혁교회는 개핀 교수의 지적처럼 ‘이중적 계시관’ (dualistic understanding of revelation)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만약 우리가 오늘날 신사도운동가들의 주장대로 ‘직통으로 받는 계시’를 인정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곧 성경의 총족성과 계시의 종결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계속해서 성경과 동등한 계시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의미가 된다. 그렇다면 결국 신사도적 은사를 받았다는 지도자들이 받은 계

6) 피터 와그너(김영우 역), 『종교의 영으로부터의 자유』(WLI Korea, 2008), 25~26.





시와 예언을 통해 새로운 계시 내용들이 기존 성경에 추가되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현재의 복음과 다른, 또 현재의 기독교와 다른 새로운 복음과 새로운 기독교가 만들어질 위험성을 내포하게 된다. 여기에 신사도운동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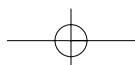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신사도운동을 하는 이들의 주장을 한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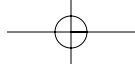
"성경은 하나님을 알도록 주신 책이고, 하나님은 성경보다 크고 위대하다. 성경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 그 자신에게 집중하자! 역사와 교리에 매이지 말고 그 보다 크신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을 따르자! 우리는 새로운 역사와 교리를 만들어가는 개혁자들이다. 우리가 하는 일의 이름은 "신사도 개혁운동(New Apostolic Reformation)이다".

자칫 이들의 주장이 매우 설득력 있게 들린다. 그리고 자주 이러한 주장에 쉽게 동조해 버리게 된다. 하지만 꼭 기억하라. 우리 하나님은 아주 흡족하게 신구약 66권의 성경 속에 자신의 뜻을 온전히 계시해 놓으셨음을! 그것도 부족함이 없이...!

Ⅲ. 맺음 말

목회현장에서 사역하는 목사는 수많은 유혹들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한 유혹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교회성장이라는 유혹이다. 정통적인 교회에서 장기목회를 하는 목사의 경우 더욱 이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 필자는 117년된 역사적인 교회에서 12년째 목회를 하고 있다. 어떤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에 주변의 동역자들의 충심어린 권고 앞에 솔깃해지는 얘기가





신사도운동의 아류들이 보여주는 부흥 패턴들(?)이다. 직통계시를 받는 사람들, 천국을 들락거리는 입신 얘기, 금니 변화 소문, 치유 기적 등등... 또한 목회현장에서 성도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목사가 현실적으로 직면할 때 받는 유혹들도 너무도 많다. 하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을 붙잡고, 이전의 개혁자들이 우리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유산인 교리문답들 앞에서 바로 서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기에 필자는 주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주셨던 말씀이 떠오른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마태복음 6:13).

우리 주변에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몇가지 치유부흥운동들과 전도양육 프로그램인 알파코스와 G-12, 두날개 등도 신사도운동의 범주에 들어있다는 어떤 이단연구가의 글을 읽었는데 신사도운동에 대한 경계심없이 행한 여러 실수들을 우리 또한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또한 목회자들 가운데 사도적 리더십이라는 미명하에 그 아래 여러 교회들을 두면서 네트 워킹화하여 ‘성경적인 교회회복’, ‘신약원형 교회회복’,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등의 기치를 내걸고 활동하는 ‘숨겨진’ 신사도 운동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예의주시하여야 할 것이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요한계시록 2:2)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교회를 향해 주신 칭찬이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를 향한 칭찬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심정을 가지고 **신사도운동**에 대하여 몇자 적어 보았다.

오직 성경 Sola Scriptura

